

자동차기자협회, 5월의 차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선정

상품성·편의사양 등 고득점
"다목적차 새로운 이동경험 선사"

현대자동차의 대표 다목적차(MPV) 스타리아가 전동화와 상품성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는 2026년 5월의 차에 현대자동차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협회 산하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출시된 신차 및 부분 변경 모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이달의 차'를 발표한다. 평가 항목은 ▲내·외부 디자인 및 감성 품질 ▲안전성 및 편의 사양 ▲동력 성능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배출 ▲상품성 및 구매 의향도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스타리아 일렉트릭은 아우디 더 뉴 A6, 포르쉐 신형 911 터보 S와 함께 후보



현대차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주행 모습.

에 올라 50점 만점 중 37.7점을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 상품성 및 구매 의향도 부문에서 8.3점을 기록했으며 안전성 및 편의 사양 8점, 에너지 효율성 7.7점을 기록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원선웅 올해의 차 선정위원장은 "스타리아 일렉트릭은 전동화 파워트레인

을 통해 다목적 차량 특유의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며 이동의 정숙성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모델"이라며 "특히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의 장점을 살린 낮은 지상고와 여유로운 실내 공간은 사용자에게 차별화된 개방감과 편의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달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과 '더 뉴 스타리아 리무진'을 출시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스타리아 일렉트릭은 지난 1월 2026 브뤼셀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된 모델이다. 84.0kWh 용량의 4세대 배터리를 탑재해 최고 출력 160kW, 최대 토크 350Nm를 발휘하며 1회 충전 시 최대 387km 주행이 가능하다. 전비는 kWh당 4.1km다.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적용해 350kW급 충전기 기준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약 20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 리무진 모델은 하이브리드 6·9인승과 전기차 6인승 등 3가지 라인업으로 운영된다. 고급 내외장 디자인과 차별화된 탑승 경험을 통해 VIP 수요를 겨냥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i뱅크, 대학생 헌혈 캠페인 후원

i뱅크는 지역 대학생들의 생명 나눔 실천과 헌혈 문화 조성을 위한 '대학생 헌혈 캠페인 지원사업'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i뱅크는 총 800만원 상당의 헌혈 기념품을 지원했다. 신용필 i뱅크 부행장(앞줄 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뱅크



해양진흥공사, 윤리경영 공모전 우수상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난달 30일 '제6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공사는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류재형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사장(가운데)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해양진흥공사



하나은행, 시니어 자산관리서비스 강화

하나은행은 지난 6일 브릭스인베스트먼트와 '소요한남 by 파르나스' 입주자를 위한 '유연대용신약 및 자산관리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은정 하나은행 WM 본부장(왼쪽)이 홍지협(주)브릭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가운데)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SK, 성장 단계 소셜벤처 돕는다

'임팩트부스터' 출범... 사업자금 지원 하이닉스 등 주요 계열사 협력 추진

SK는 성장 단계에 진입한 소셜벤처의 도약을 돕는 프로그램 '임팩트부스터'를 출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소셜벤처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특성으로 시장에서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SK는 초기 투자(Pre-A) 단계를 지나 시리즈 A·B 단계에 진입한 소셜벤처를 매년 약 10곳 선발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SK는 선발된 기업에게 SK하이닉스·SK이노베이션·SK텔레콤 등 주요 계열사와의 사업 협력 기회를 제공한다. 또 기업 성장에 활용할 수 있는 1000만원과, SK 계열사와의 협력 과제를 실증할 사업에 필요한 자금 최대 6000만원

등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SK는 'SK프로보노', 'SE컨설턴트' 등 기존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연계해 사업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기업에는 상품 컨설팅과 판로 확대를, 기업 간거래(B2B) 기업에는 사업 실증을 통한 레퍼런스(사업이력) 확보를 지원하는 등 기업 상황별 맞춤형 육성과 후속 투자 유치를 돕는다. 서울경제진흥원(SBA)과 협력해 실증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사단법인 온올과 협력해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외부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지동섭 SV위원장은 "성장단계에서 기회를 얻지 못해 도약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통합적인 육성을 제공하는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남부발전, 공공기관 최고수준 안전관리

정부평가 7년 연속 2등급 달성

한국남부발전이 정부 주관 공공기관 안전관리 평가에서 7년 연속 최고 수준의 성적을 받았다. 중대재해도 8년 연속 제로를 기록 중이다.

7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전력 그룹사 중 유일하게 7년 연속(2019년 시범평가 포함) 2등급을 달성했다.

남부발전은 CEO의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 아래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해왔다. 주요 활동으로는 ▲남부발전 고유의 안전 특화 교육인 'KO SPO 안전혁신학교' ▲안전 취약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중소기업 안전 역량을 돕는 '안

전올타리 지원사업' 등이다.

특히 2025년에는 안전의식 내재화를 위한 '기본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성화했다. 또 협력사 근로자의 안전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전용 공간인 '다운(多溫)-터'를 구축하는 등 상생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주력했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7년 연속 최고 수준의 결과를 달성한 것은 모든 임직원과 협력사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전선도 공공기관으로서 안전 최우선 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자율안전 문화 정착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인사

◆ABL생명 △경영혁신본부장 직무대행 김선규

◆동양생명 △경영혁신본부장 상무 최근영

부음

▲이규정씨 별세, 이현수(동부건설 감사)

씨 빙부상 = 6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4호실, 발인 9일. 02-3010-2000

▲윤봉순씨 별세, 한의상(팜젠사이언스 회장)·범상·관수·해경씨 모친상, 김현숙·안공주·백미순씨 시모상, 한대희(팜젠사이언스 부사장)·근화·재희·석희·성희·아름씨 조모상, 임소연씨 시조모상, 장운경·장태현씨 외조모상 = 7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0일. 02-2258-5922

오늘의 날씨

5월 8일 (금)
음력: 3월 22일

수도권 날씨
10 ~ 2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연천 8/19, 동두천 9/20, 가평 8/19, 파주 8/20, 서울 10/20, 양평 9/20, 인천 11/20, 수원 10/20, 용인 10/20, 평택 9/20, 백령도 11/16

해돋이 / 05:30 | 해질 / 19:2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마일게이트, '스트리머 플라마켓' 연다

SOOP 협력... 아동·청소년 지원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와 SOOP(술)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에 나선다.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SOOP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2026 SOOP 스트리머 플라마켓'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플라마켓은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숲 언더스탠드 예비뉴 중 앙광장에서 열린다. SOOP 스트리머 과즙세연, BJ케이, 쿠빈 등이 참여해 애장품 판매 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조손·한부모 가정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의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일우재단, '일우미술상' 수상자 선정

한진그룹 산하 공익재단인 일우재단은 '2026 일우미술상' 수상자로 요이(Yo-E Ryou) 작가(사진)가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요이 작가는 비디오, 퍼포먼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제주 해녀 공동체와의 경험을 독창적인 예술 언어로 표현해온 차세대 작가다. 이번 수상자는 일우재단의 전시 공간인 일우스페이스에서 개인전을



열게 된다.

한진그룹은 2009년 '일우사진상'을 제정해 2022년까지 13회 공모전을 개최하고 총 36명의 사진작가를 지원해왔다. 2024년부터는 개편된 '일우미술상' 명칭으로 새롭게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상담 '110' 통합 작업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 실행 계획'을 보고하고, 본격적인 상담번호 통합 작업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중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상담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별 기능과 연락처 안내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28년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110 상담 포털화'를 추진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JW중외제약

'당부, 스타틴' 캠페인

JW중외제약은 이상지질혈증환자들에게 질환 관리와 스타틴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는 '당부, 스타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정보를 '당부(當付)'의 메시지로 전달해, 임의적인 치료 중단을 방지하고 복약 순응도를 높인다.

/이청하 기자 mlee236@